

이스마엘과 할아버지께 드리는 위로의 편지

대원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오예림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남한에 아내와 자식을 두고 있는 할아버지께서 북한의 고향집을 그리워하시는지를요. 어렸던 저는 술 드시면 고향 이야기와 고향 노래를 일삼으시던 할아버지를 낯설게만 바라보았죠. 그러다가 주문진에서 고깃배를 타고 바다유람을 갔던 날, 저는 비로소 할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동해안의 주문진 위쪽에 있는 양양이 할아버지집이었지. 1.4후퇴 때 38선이 군(郡)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곳에 살던 할아버지집에 인민군과 중공군이 들이닥쳤지. 그들은 할아버지의 동생 둘과 조카를 끌어갔단다. 얼마나 답답하고 원통하던지.... 그때 이 할아버지의 큰 동생은 어린 딸 하나를 둔 상태였지. 그들이 끌려가던 길목에서 하염없이 동생들과 조카를 부르곤 했지. 입춘이 지난 어느 날 유엔군의 공중폭격이 계속되는 틈을 이용해서 큰 동생과 조카는 몰래 인민군 복을 벗어던지고 속옷 차림으로 도망왔더구나. 그러나 반가움보다는 작은 동생이 오지 못한 것이 큰 통한이 되더구나. 그 후 운명의 장난인지 큰동생과 조카는 다시 국군에 징집되었고, 이번에는 큰동생이 영영 돌아오지 못했지. 들리는 소식으로는 화천지역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하나 유해와 유품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아직도 만나고 싶은 마음의 불길을 끌 수가 없어. 이 할아버지는 남북으로 갈린 고향에서 남한으로 넘어왔지. 그런데 아직도 가족을 남기고 왔다는 죄책감에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다."

할아버지! 그날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사연을 듣고 저는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향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할아버지가 아직도 그곳을 잊지 못하시는지를 이제 잘 알고 있어요.

이런 할아버지께 제가 두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선물은 이스마엘 베아가 지은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에요. 이스마엘은 대한민국에서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 태어난 소년이었죠. 내전이 발발했을 때

그는 겨우 열두살이었대요. 제가 열두살 때 '신화'라는 그룹을 좋아했던 것처럼 이스마엘은 랩을 좋아하고 힙합댄스를 좋아하던 소년이었어요. 반군이 바로 코앞까지 닥쳐온 것도 모르고 이스마엘은 장기자랑을 위해 형과 친구들과 함께 다른 도시로 길을 떠났죠. 어쩌면 그것이 가족과의 헤어짐이라는 걸 그는 상상이나 해보았을까요?

불쌍한 이스마엘 베아. 그는 반군을 만나고 그들의 잔혹함으로부터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어요. 그때 만난 주민들의 모습은 두 종류였어요. 하나는 이들을 보호해주려는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들에게 의심의 눈길을 보내며 도리어 이들을 괴롭힌 사람들이죠. 보호해주려는 쪽은 거의 없는 반면 대다수의 주민들은 이들을 어린 반군으로 보고 한사코 마을에서 내쫓았어요. 전쟁은 그런가 봐요. 그렇게 인간의 정마저도 앗아가는 것인가 봐요. 집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해도 이스마엘 베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아직도 동생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가실 수 없는 할아버지에 비해 이스마엘은 얼마나 행복한가 생각하면서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그러나 이스마엘이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마을은 반군에게 점령당하고 가족들은 몰살당했어요. 이런 전쟁의 잔혹한 광기를 어린 이스마엘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이스마엘의 아픔을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할아버지는 이스마엘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이죠. 할아버지는 고향으로 갈 희망이 있고, 아직도 기다릴 수 있는 복한 가족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은 도망치다가 끝내는 '소년병'이 되어 전쟁에 투입되었어요. 그리고는 전쟁의 광기에 휩쓸려 사람들을 죽이는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가 유니세프에 의해 구출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할아버지께 드릴 첫 번째 선물로 선택한 거예요. 할아버지보다 더 아픈 이스마엘의 처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작은 동생처럼 '소년병'이 되었던 이스마엘의 생환이 할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살아온 것처럼 큰 기쁨이 될 것 같아서요.

두 번째 선물은 할아버지를 위한 시 한 편이에요. 할아버지의 '소년병' 동생이 살고 있을 그 마을을 저는 '또 다른 할아버지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는 할아버지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삶을 넘어서서 집을 찾아 나선 이스마엘 베아에게도 바치고 싶네요.

할아버지 고향/ 강원도 양양엔/ 이맘때면 노을이 붉다고 한다.
할아버지/ 동생들 잃던 그날로부터/ 가슴엔/ 멍울이 자꾸 자란다.
남겨진 동생은 어찌 지낼까/ 추석절 차례는 어떻게 지낼까/ 가족 그리는 그 마음/ 고향 근처 주문진에 뿌리내렸다.
떠나갈 때 어린 청춘 막내동생을/ 한스런 세월에 잃어버리고/ 눈물의 고향을 떠나올 때는/
통일 씨앗 한 알을 뿌려두었다.
할아버지 흘린 맑은 눈물에/ 통일염원 날마다 쭉쭉 자라서/ 남북한 들판을 수놓았으면
할아버지택 산너머엔/ 또 다른 할아버지택/ 할아버지 손잡고 가고 싶은/
또 다른 할아버지택.

'소년병' 이스마엘 베아가 평화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의 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니세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전 세계의 많은 내전 국가에서 아직도 정부군, 혹은 반군의 꼭두각시가 되어 움직이는 소년병들을 구출하는 역할을 맡은 유니세프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또한 이런 유니세프를 후원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자긍심이 느껴지네요. 할아버지! 밤바람이칩니다. 이스마엘의 평화를 떠올리며 편히 주무세요. 이스마엘처럼 할아버지의 동생이 살아오는 꿈도 꾸시면 더욱 좋겠네요.